

2018년 일본세관 지재권 침해 물품 단속현황
-수입금지 수량이 90 만점을 초과하여 과거 5년간 최고 수준-

일본 재무성은 2019년 3월 8일 2018년 1년간 전국세관의 지적 재산권 침해 물품 단속실적을 발표하였는바, 주요 내용을 보면 다음과 같다.

1. 총괄

수입금지 건수는 26,005건으로 전년 대비 15.1% 감소하였으나, 7년 연속 2만 5천 건을 초과하는 등 고수준을 유지하였으며, 수입금지 수량은 929,675점으로 전년 대비 83.5%나 증가하여 과거 5년간 최고 수준을 기록하였다.

1일 평균 71건, 2,500점 이상의 지재권 침해 물품의 수입을 금지하고 있다고 볼 수 있으며, 금액¹⁾으로 환산하면 약 135억¥ 정도이다.

(표1) 연도별 지재권 침해 물품 적발실적

구분	2003년	2008년	2014년	2015년	2016년	2017년	2018년
건수	7,412	26,415	32,060	29,274	26,034	30,627	26,005
점수(만점)	77.1	94.4	89.6	69.0	62.3	50.7	93.0

2. 수출국(지역)별 수입금지 실적

수입금지 건수로 보면 중국이 22,578건으로 전년 대비 20.1% 감소하였으며, 전체 금지 건수의 86.8%를 차지하여 9년 만에 구성비가 90% 이하로 떨어졌다. 그다음으로 홍콩이 1,150건(전년 대비 38.9% 증가, 구성비 4.4%), 필리핀이 715건(전년 대비 66.3% 증가, 구성비 2.7%), 한국이 525건(전년 대비 63.0% 증가, 구성비 2.0%)이다.

수입금지 수량으로 보면 중국이 773,460점으로 전년 대비 86.4%나 증가하였으며, 전체 금지 수량의 83.2%를 차지하고 있다. 그다음으로 홍콩이 100,430점(전년 대비 82.5% 증가, 구성비 10.8%), 한국이 17,449점(전년 대비 86.3% 증가, 구성비 1.9%), 태국이 10,555점(전년 대비 154.8% 증가, 구성비 1.1%)이다.

건수와 수량 모두 중국의 구성비가 여전히 높은 수준을 나타내고 있다.

(표2) 연도별/수출국별 수입금지 건수 구성비 추이(%)

	2003년	2008년	2014년	2015년	2016년	2017년	2018년
중국	22.0	81.5	92.2	91.1	91.9	92.2	86.8
홍콩	8.4	2.5	4.3	4.2	2.8	2.7	4.4
한국	60.8	12.4	1.3	1.7	1.6	1.1	2.0
기타	8.8	3.6	2.2	3.0	3.7	4.0	6.8

1) 정품가격으로 계산한 금액이다.

3. 지적 재산권별 수입금지 실적

수입금지 건수로 보면 위조 상품 등 상표권 침해 물품이 25,284건으로서 전년 대비 16.0% 감소하였으나, 전체 금지 건수의 96.6%를 차지하여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다. 그다음으로는 저작권 침해 물품이 438건(전년 대비 48.5% 증가, 구성비 1.7%)이다.

수입금지 수량으로 보면 상표권 침해 물품이 723,650점으로서 전년 대비 131.0% 급증하였으며, 전체 금지 수량의 77.8%를 차지하고 있다. 그다음으로는 이어폰 등 의장권 침해 물품이 116,597점(전년 대비 13.7% 감소, 구성비 12.5%)이다.

(표3) 지적 재산권별 수입금지 건수 구성비 추이(%)

	상표권	저작권	의장권	특허권	부정경쟁방지법
2017년	98.0	1.0	1.0	0.1	0.0
2018년	96.6	1.7	1.7	0.0	0.0

(표4) 지적 재산권별 수입금지 수량 구성비 추이(%)

	상표권	의장권	저작권	특허권	부정경쟁방지법
2017년	61.8	26.7	6.2	5.3	0.0
2018년	77.8	12.5	6.6	3.0	0.0

4. 품목별 수입금지 실적

수입금지 건수로 보면 지갑, 핸드백 등 가방류가 9,391건(전년 대비 26.2% 감소, 구성비 33.0%)으로서 가장 많으며, 그다음으로는 의류가 6,093건(전년 대비 33.0% 증가, 구성비 21.4%), 구두류가 3,170건(전년 대비 20.2% 증가, 구성비 11.1%), 휴대폰케이스 등 휴대전화 및 부속품이 2,385건(전년 대비 34.4% 감소, 구성비 8.4%)이다.

수입금지 수량으로 보면 의약품이 319,716점(구성비 34.4%)으로서 전년 대비 1701.7%나 대폭 증가하였으며, 그다음으로는 신체용 마사지기구 등 가정용 잡화가 74,534점(전년 대비 154.2% 증가, 구성비 8.0%), 이어폰 등 전기제품이 68,795점(전년 대비 41.2% 감소, 구성비 7.4%), 가방류가 65,769점(전년 대비 82.3% 증가, 구성비 7.1%)이다.

5. 수입형태별 수입금지 실적

수입금지 건수로 보면 우편물이 대다수를 차지하고 있는데, 우편물이 22,563건(전년 대비 20.4% 감소, 구성비 86.8%), 일반화물이 3,442건(전년 대비 50.5% 증가, 구성비 13.2%)이다.

수입금지 수량으로 보면 우편물이 522,129점(전년 대비 136.9% 증가, 구성비 56.2%), 일반화물이 407,546점(전년 대비 42.3% 증가, 구성비 43.8%)이다.